

야구라: 아시카가 가문의 묘

가쇼도 안쪽에 있는 절벽에는 입구가 아치형인 3 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야구라라고 불리는 이곳은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절벽을 파서 만든 동굴입니다. 야구라는 가마쿠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로 내부에는 여러 석비가 놓여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묘를 조성할 때 지면을 세로로 판 구덩이에 시신을 묻습니다. 그에 반해 야구라 안의 구덩이는 동굴의 바닥을 따라 평평하고 얇게 파여 있습니다. 각각의 야구라에는 화장한 유골을 담은 여러 유골함이 있으며, 묘 위에는 묘석으로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야구라 형태의 묘는 평지가 적은 마을의 특성상 가마쿠라에서 고안된 형태라고 여겨집니다. 가마쿠라를 둘러싼 산과 언덕은 부드러운 응회암질 사암이라는 점에서 구덩이를 파는 것이 비교적 쉬웠을 것입니다.

호코쿠지 절은 1334 년에 창건된 이래,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아시카가 가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시카가 가문의 충신이었던 우에스기 시게카네(1375 년 사망)의 노력으로 인해, 정쟁으로 사망한 아시카가 이에토키(1284 년 사망)의 혼을 호코쿠지 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에토키의 손자에 해당하는 아시카가 다카우지(1305~1358)는 호코쿠지 절이 창건된 지 불과 4 년만에 쇼군이 되면서, 아시카가 가문이 대를 이어 쇼군의 자리에 오르는 무로마치 막부(1338~1573)를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아시카가 가문이 일본을 통치하는 가문이 되었고, 이에토키 등 아시카가 가문의 주요 인물들 중 몇 명은 이 야구라에 묻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을이 되면 야구라 주변 일대가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으로 절경을 자랑합니다.